

【대기 아동 해소에의 과제】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올해 5월에 오카야마시의 대기 아동 수가 과거 최대인 729명(4월 1일 현재)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1희망에서 제 3희망까지 모두 입학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못한 아동」을 대기 아동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수정한데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국 최저 2위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의 재검토도 계기의 하나가 되고, 대기 아동의 정의가 지자체별 재량으로 인해 모호하다는 것이 널리 인지되어 지금 국가에서도 정의의 통일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에서 대기 아동 대책 회의 (9월 27일 개최) 에의 참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와 겹쳐져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이날 후생노동성의 간부에게 오카야마시의 대기아동 대책 방안에 관해 설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제가 전하고 싶은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카야마시가 2003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대가 아동이 제로였던 것이, 육아 환경의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의 하나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기 아동 수를 발표하는 의미는 행정으로 해소를 도모하는 목표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만, 대기아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육아 환경의 정비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로서는 그 부분을 정확히 감안한 후 정의에 대해 생각하자 라는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오카야마시에서도 내년에 800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하드 정비나 근로 방식의 개혁의 필요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보육교사 확보가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카야마 시내에서는 약 2,100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추산해보면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서는 120명, 미입원 아동 전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10명의 보육교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듣기로는 오카야마에서 도쿄 등으로 보육교사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해 재정적 여력의 차이에 의해 보육교사 처우의 격차가 커지면 지금 이상으로 지방에서 도쿄권으로 인재 유출이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재정적 여력이 적고 대기 아동 문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시점으로 향후의 보육교사 확보 등,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대책을 검토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의 해결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에 오카야마시와 지방 도시의 실정을 충분한 이해를 촉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카야마시에서는 앞으로도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육아 환경의 내실화에 이바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한층 더 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